

광주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록 훼손 심각

광주지역에 설치된 시각장애인용 점자 보도블록이 심하게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하는 장애인들이 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시설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7일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 수완중학교 주변 인도 이곳에 설치된 우레탄 재질의 점자 보도블록(가로·세로 30cm)은 대부분 뜯겨 있었다.

횡단보도 앞에 설치된 점자블록의 빛깔은 검게 변해 있었고, 형태를 알아볼 수 없는 블록도 많았다.

수완중 맞은편에 설치된 블록 80%가량은 잡초 등에 가려져 모습조차 보이지 않았다.

수완중 인근 은빛초등학교 체육관 주변 인도에 설치된 블록 바로 옆에는 지상 변압기와 개폐기가 놓

교통약자 이동 편의 규정 무시

안전사고 위험...시설 보완 시급

여 있어 보행 시 부딪힐 위험이 커 보였다.

점자블록 반경 20cm 이내에는 어떤 장애물도 없어야 하고, 선형과 점형의 돌기로 보행·정지·분기점 등을 표시해야 하는 규정(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수완지구대와 국민은행·어등산 약국 사거리, 하나로마트 주변에 설치된 블록도 훼손된 흔적이 많았다. 낡아 떨어진 노란 블록 조각은 쓰레기·현수막과 뒤섞인 채 방치돼 있었다.

임방울대로에서 무진대로로 향하

는 도로 갖길과 서구 풍암동 금당산 산책로 주변에 설치된 블록은 흠이 끊겨 있었고, 해당 자리에는 벽돌이 놓여 있었다.

이 같은 허술한 관리에 점자블록 보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광산구 계시관에는 5건의 점자블록 정비를 요청하는 민원이 제기됐다.

장덕동 주민 김선규씨는 "2년 전부터 수완지구에 설치된 블록이 갈라지고 깨져 있었다"며 "시각장애인들과 시민의 안전에 위험이 될 수 있는 만큼 하루빨리 교체 작업을 해 달라"고 계시관에 글을 남겼다.

임형택 기자

러 캄차카반도 해역 규모 7.8 강진 발생

러시아의 니콜스코예 동남동쪽 199km 지점에서 18일 오전 규모 7.8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다고 미국 지질조사국(USGS)이 17일(현지시간) 밝혔다.

USGS는 진원지는 북위 54.4656도, 동경 168.8218도로 미 알래스카주의 알류산 열도와 러시아 캄차카 반도 중간 지점이며 지하 11.7km에서 지진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미 태평양쓰나미경고센터는 진원지로부터 반경 300km 이내의 지역에 "위험한" 쓰나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알래스카 서부 해안지대나 캄차카 반도 해안지대 모두 진원지로부터 300km 이상 떨어져 있어 쓰나미가 달칠 위험은 크지 않다고 센터는 덧붙였다.

최초 지진 발생 이후 규모 5.0 이상의 여진 2차례를 포함해 많은 여진이 계속됐다.

USGS는 당초 지진 규모를 7.4로 발표하다가 곧바로 7.8로 상향 발표했다.

미국인 70% "트럼프, 대통령답지 않다"

미국인의 70%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답지 못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직에 걸맞게 행동하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24%에 불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6개월을 맞아 WP가 ABC방송과 함께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다. 미국 전역의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대통령다운 태도'에 대한 평가는 공화당 내부에서도 상당한 입장차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화당원의 54%가 트럼프 대통령의 행태가 대통령으로서 적절했다고 답한 반면 38%는 대통령답지 않았다고 답했다.

응답자 중 56%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이 대통령답지 못할 뿐 아니라 대통령직에 해를 끼치고 있다"고 답했다. 심지어 공화당원의 5명 중 1명에 해당하는 18%가 이에 동의했다.

WP는 "대선 기간부터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이 가장 큰 의문이 제기됐던 트럼프 대통령이 6개월 간의 임중 기간을 거쳤음에도 기본적인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셈"이라고 분석했다.

대선 기간 중 실시된 다양한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 당시 대선 후보의 기질에 의문을 갖는 사람은 대략 10명 중 6명에 달했다. 선거 이전 WP와 ABC방송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의 자질이 없다고 답한 사람은 62%를 기록했다.

이집트 '무슬림형제단' 테러범 8명 사형선고

이집트의 법원은 17일(현지시간) 카이로 북부 베헤이라주의 다만후르에서 경찰서를 습격했던 무슬림형제단원 8명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2명은 종신형, 다른 10명에게는 10년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국영 메나통신이 보도했다.

피고들은 법적으로 금지된 단체에 가입했으며 경찰서 공격과 불법 무기 소지 등을 한 혐의로 다만후르의 형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상태였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의 경찰서 공격은 다른 송전탑에 대한 공격과 함께 2015년 4월 15일 거행되었다.

캐나다 산불 강풍타고 악화 4만명 대피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일대 산불지역의 불길이 강풍을 타고 빠른 속도로 확산되면서 주말에 4만명의 주민이 집을 떠나 대피, 기류이나 불씨는 대피소들이 초민원을 이뤘다. 주 정부는 이 지역 일대에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렐프 굿데일 연방 공공안전부 장관은 17일(현지시간) 연방정부의 군용기와 호주에서 보내준 50대의 전부기들까지 산불 현장에 투입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캐나다 최정예의 노바스코시야 소방대도 산불 선단지역에 투입되었다.

굿데일 장관은 현재 산불은 악화일로에 있으며 진화의 기미가 없다고 예측했다. 밴쿠버 북동쪽 6시간 거리에 있는 윌리엄스 레이크 시 전체가 주말에 주민대피령이 내려졌다. 이 도시의 총 인구는 1만명이 넘는다.



여름 노래하는 매미 한쌍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고 폭풍 썰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18일 서울 마포구 창천로 가로수에서 매미 한쌍이 여름이라 느낄 수 있는 빈가운 소리로 울고 있다.

'물폭탄' 충북 6명 사망...재산피해 170억 넘어서

4~5시간 만에 3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진 청주 등 충북 지역의 비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18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15~16일 큰비로 도민 6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으며 445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애초 사망·실종자는 4명이었으나 청주시 연수동 건물에서 추락해 숨진 A(50)씨와 침수 도로 복구작업 중 삼근경색으로 사망한 도청 소속 도로보수원 B(50)씨가 추가됐다.

보은군 청천면에서 실종된 C(83)씨는 아직 찾지 못했다. 도 등 관계

당국은 인력과 헬기를 동원해 수색 작업을 진행 중이다.

도와 도내 시군이 이날 오전까지 집계한 재산 피해액은 총 172억5800만원에 이른다.

청주산단 폐수처리시설과 상하수도 20개소, 도로 14곳 하천 28곳, 문화재 3곳 등 공공시설이 수해를 입었으며 6만㎡의 임야가 산사태로 무너져 내렸다.

주택 5채가 반파됐고 781채가 침수됐으며 농경지 2959ha도 물에 잠겼다. 28개의 공장과 축수산 시설 54곳이 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내 곳곳에서 총 764대의 차량이 침수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침수 또는 붕괴로 도내 36곳에서 전기와 상하수도, 도시가스 공급 차질 현상이 빚어졌다.

이재민은 청주시 118가구 227명, 괴산군 87가구 218명이다. 이재민들에게는 하루 7000원의 응급구호비와 재해구호 세트, 식사, 모포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도는 전했다.

전날 시군 공무원을 제외한 1508명의 인력을 수해 복구 현장에 투입했던 도는 이날도 1000여명의 인력을 현장에 보내 복구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 초고층건물 2곳

중 1곳 소방안전 불량

국내 50층 이상 초고층 건물 2곳 중 1곳이 소방 안전관리가 불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는 런던건물 화재를 계기로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7일까지 초고층 건물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방화시설 유지관리 의무 위반 등 5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결과에 따르면 전체 50층 이상 건물 107곳 중 인천 송도아파트원퍼르지오, 서울 트레아드타워·63빌딩·목동하이페리온, 부산 더샵센트럴스타 등 서울과 부산 경기 인천 지역에서 위험성이 높은 10곳이 진단을 받았다.

점검은 소방안전, 기계, 전기, 건축, 가스, 화공 등 분야별 안전기준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예상되는 위험 사항에 맞춤형 안전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안전처는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의무 위반 4건, 소방시설 유지관리 위반 1건 등 위반이 저질러진 5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소방시설 유지관리 불량 61건에 대해선 조치명령을 내렸다. 고층건물 옥상 헬기 이착륙장인 헬리포트 등 인명구조시설 관리 불량, 건축·가스 분야 지적 사항에 대해선 기관 통보 9건, 즉시 현장 시정 25건이 이뤄졌다.

안전처는 이번 안전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11일 전문가 워크숍을 열고 초고층건물의 위험 요인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점을 찾고 맞춤형 해결책을 마련한다.

뉴스스

노사가 함께 만들어 가는 활기찬 산업현장!

노·사 갈등을 넘어 상생할 수 있는 전남노사민정 사적 조정제도가 있습니다

▶ 노·사, 노·노 간에 갈등이 있나요?

- 전라남도 노사갈등 조정해결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 노·사가 서로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에 드립니다.
- 임금, 퇴직금, 해고, 산재 단체교섭 노조활동, 노동문제로 애로사항이 있는 개인이나 기업, 노동조합등 누구든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상담전화 062) 524-9666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 전라남도 노사갈등조정해결실무위원회